

## 대영홍산 김학동 대표 우리학교에 2억원 기부



대영홍산 김학동 대표이사께서 지난 달 18일 우리학교에 현금 2억원을 기부했다. 김 대표는 우리학교 출신은 아니다. 하지만 불교 신자였던 선전(故김주한, 故손용희)의 사회복지사업을 하라는 유지와 함께 김동화 전 총장이 결혼식 주례를 본 인연으로 우리학교에 기부하게 됐다고 한다. 김 대표는 기부금에 대해 "김주한·손용희 장학기금으로 사상, 종교를 떠나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를 지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어청수·민승규 동문 새정부 요직에 임명

어청수·민승규 동문이 새 정부의 요직에 임명됐다. 이미 지난 달 11일 취임한 어청수(경찰행정 80졸)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측이 함께 협의해 인사를 단행한 첫 번째 고위직이다. 어 청장은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경찰이 중심이 돼 질서회복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승규(농업경제 88졸) 동문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농수산 비서관에 임명됐다. 우리대학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민 동문은 94년 도쿄대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농촌진흥청을 거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위기관리전문가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기간동안 이명박 후보 캠프의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을 역임했다.

## 오늘(3일) 11시 만해광장 신입생 입학식 개최

2008학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 입학식이 오늘(3일) 11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입학식에는 총 11개 단과대 2,956명이 참석하며 수석입학자는 △인문계열=김도원(경영1) △자연계열=김지수(생과대1) △예체능계열=차세남(영화영상1)이다. 한편 우리학교 13대 재단이사장을 역임한 이종욱 박사의 증손녀인 심수진양이 4대를 이어 학교에 입학해 눈길을 끌고 있다.

## 학위수여식 열려 3,608명 학위 수여

지난달 22일 학위수여식이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박사 85명, 일반대학원 석사 201명, 특수대학원 석사 380명, 학사 2,361명으로 총 3,608명이 학위를 받았다. 한편 이영석 한양대 영문과 교수가 불교미술 석사학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낮에는 영문학을 가르치고 밤에는 불교미술을 공부해왔다. 성취우수상을 받은 각 단과대별 수석 졸업자는 다음과 같다. △불교대=권기원(불교) △문과대=김여진(영문) △이과대=홍지선(생물) △법과대=남덕윤(법학) △사회과학대=배미정(행정) △경영대=지경남(경영) △생명자원과학대=황해경(산림자원) △공과대=장근아(생화학) △정보산업대=김해영(정통) △사범대=김가영(가교) △예술대=신민정(서양화)

# 국내대학 최초 강의평가 전면 공개

## 점수와 등급별로 나눠 ... 교수들, 평가항목 조정 요구

우리학교가 국내대학 최초로 지난 학기 강의를 맡았던 1,049명의 교수 전원의 강의평가를 공개했다. 지난 달 중순 교무팀은 학교홈페이지의 강의계획서 코너를 통해 2007학년도 2학기 강의의 강의평가 점수를 Ex(Excellent: 1%~20%), G(Good: 21%~80%), P(Poor: 81%~100%)인 총 3가지 등급으로 나눠 교수별로 점수와 함께 공개했다. 강의 평가자는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수업 전에 강의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었는가', '결강 또는 결손이 없는 강의였는가' 등 약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문을 학기 중 두 번에 걸쳐 실시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다. 이번 공개된 강의평가는 D, F의 성적을 받은 학생평가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평가 인원이 3명 이하인 강좌도 제외됐다. 강의평가 결과 전임교수 이상 가운데 200점 만점에 195.5점을 받은 황진환(사회환경시스템공학) 교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고 189.71점을 받은 이운택(연극학) 교수, 189.49점을 받은 이성철(사회환경시스템공학) 교수가 뒤를 이었다. 지난 달 27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강의평가 상위권 교수에 대한 Best Teaching 수상이 있었다. 이처럼 강의평가를 전면공개함으로써, 교수 수업연구 활성화를 하고, 이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여 최종적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또한 수업준비와 연구를 게을리 하는 교수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학교 측은 공개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수들은 강의 문제점을 파악할 기회로 삼아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수회(회장=정재형·영화영상학)는 강의평가 공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달 27일 정기교수총회에서 정재형 교수는 "강의평가는 진행해야 하지



지난 달 27일 열린 Best Teaching award 시상식

만 불완전한 형태의 강의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승진에 반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이날 강의평가 항목을 조정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민지(국문4) 양은 "교수님들도 강의에 더욱 충실해질 것 같다. 게다가 학생들과의 소통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 같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나의 주장 및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강의 평가 공개를 환영하는 의견을 내보냈다. 학교 측은 "강의 평가항목 개발에 노력하겠지만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혀 교수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친해지길 바래" ...

지난 달 24일부터 각 단과대 별 새내기 새로 배움터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개강 전 새내기 와 재학생이 어우러져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사진은 새내기들의 친교를 위한 프로그램의 한 장면.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 올해 등록금 9% 인상

### 6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인상 요인에 대한 설명회 개최

올해 우리학교 등록금이 9% 인상됐다. 지난해 인상률인 재학생 7.5%, 신입생 8.5%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치다. 학교 측은 인상요인으로 △물가 및 유가 상승 △신공학과 신축 및 중앙도서관 증축 △학생 정원 감소 등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률이 3~4%로 예측되고 있고 중앙도서관 증축을 위해 30여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다 학생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등록금 수입이 43억여 원이 감소한 것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략예산팀 관계자는 "등록금 9% 인상액이 학생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간직예산을 편성하고 부서 운영비율 30% 정도 줄이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오는 6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올해 등록금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오영교 총장과 전략예산팀 관계자가 참석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수입이 43억여 원이 감소한 것도 인상요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탈락 이중잣대 기준에 학내외 반발

우리학교가 로스쿨 9월 본인가를 앞두고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 했다. 이번 예비인가는 전체 25개 대학 2,000명 정원 중, 수도권 지역에서는 15개 대학 1,140명이 지방권역에서는 10개 대학 860명이 각각 할당됐다. 우리학교는 총점 840점대로 수도권권 14위를 차지해 순위만으로는 합격권이었지만 수도권 내에서 또다시 지역안배라는 이중 잣대

로 인과대와 강원대에 자리를 내줬다. 또한 구조개혁선도대학으로 선정돼 대학구조개혁 실적에서 5점 만점을 받은 13개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학교는 이번 선정결과의 부당함을 항의하며 증거보전신청을 내고, 이어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및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2면

## 예일대 총장, 공식 사과 서한 전달

### 신씨 학력조회 행정적 착오 인정

지난 2월 '신정아 가짜 학위사건' 관련 허위 학력을 확인해 준 미국 예일대의 리처드 레빈(Richard C. Levin) 총장이 우리대학에 서한을 보내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학교 측은 1일 리처드 레빈 예일대 총장이 31일 오영교 총장에게 공식 사과 서한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예일대 측이 우리 학교로 회신한 신정아 학력검증 예일대 팩스가 진본으로 밝혀진 이후 이뤄진 것이다. 예일대 리처드 레빈 총장은 서한에서 "지난 2005년과 2007년 동국대가 요청한 학력조회에 대해 예일대 학이 실수한 행정적 착오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학위검증시스템의 구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대학은 예일대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학교 명예실추를 덜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뤄진 것이다. 예일대 리처드 레빈 총장은 서한에서 "지난 2005년과 2007년 동국대가 요청한 학력조회에 대해 예일대 학이 실수한 행정적 착오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학위검증시스템의 구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대학은 예일대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학교 명예실추를 덜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

## 2008학년도 교원임용고사 67명 합격

### 가정교육과, 서울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우리학교 2008학년도 교원임용고사 합격자가 6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2006년 40명, 작년 52명 보다 월등히 늘어난 것이다. 한편 이번 임용고사 합격자 중 양지동(국교·08졸)은 일본어고사 수석, 이재영(가교·06졸)은 서울 지역에서 수석을 차지했으며 가정교육과는 서울지역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사범대학 학사운영실 김효정 계장은 "임용고사 지원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사범고사 '임용고사 지원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사범고사 지원이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학과별 합격 수는 다음과 같다. △국어교육과 = 10명, △역사교육과 = 12명, △지리교육과 = 13명, △교육학과 = 5명, △수학교육과 = 2명

미국 대학과 협약체결 이달 중 교류 학생 선발  
우리학교가 캘리포니아주립대 산타크루즈 캠퍼스 등 미국 대학과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국제화추진단(단장=김일중·국제통상학)은 지난 11일부터 18일 까지 일리노이 및 미국 대학들을 방문 해, 캘리포니아주립대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과 학술교류 및 학생교류협정 체결을 마쳤으며, 일리노이대학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과도 협약 체결이 성사돼 올해 3월에 10명 이내로 학생을 선발해 다음 학기부터 학생교류를 시작한다.

## 맥주 값 '담합' 의혹 동일한 시기에 같은 인상폭

우리학교 주변 총무로 일대 술집들이 일제히 맥주 값을 인상해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대신문 취재팀이 학생들이 자주 찾는 술집 12곳을 취재한 결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맥주 값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맥주 값은 2천cc가 7천원에서 9천원으로, 3천cc가 9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30% 이상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2월 초부터 맥주가격을 인상한 A 호프집 사장은 "물가가 올라 진작부터 술값을 올려야 했다. 우리가게만 맥주 값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 일대 다른 곳도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말했다. 반면 아직까지 술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호프집도 소수 남아있다. 술값을 유지하고 있는 B호프집 사장은 "노동사 가격에 비해 맥주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호프집도 소수 남아있다. 술값을 유지하고 있는 B호프집 사장은 "노동사 가격에 비해 맥주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격대도 5백~천 원 정도의 가격차는 있지만 특정 지역의 호프집이 동시에 가격을 인상한 곳은 없었다. 맥주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문의한 결과 최근 맥주 값의 인상 사실 또한 없었다.

행위는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 있어도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공동행위를 통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독점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경제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합의한 사실만 인정되면 위법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학교 주변에도 임대료가 비싼 신촌, 대학로 일대는 사정이 다르다. 맥주원가가 올라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는 달리 맥주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격대도 5백~천 원 정도의 가격차는 있지만 특정 지역의 호프집이 동시에 가격을 인상한 곳은 없었다. 맥주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문의한 결과 최근 맥주 값의 인상 사실 또한 없었다.

학교 주변 호프집의 맥주 가격 인상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 모(경영3)은 "개강 초에는 술자리를 자주 가지는데 맥주가격이 올라 부담스럽다. 한 두 고이 아니라 일대 주변술집은 모두 가격이 올라 담합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학교 주변 호프집의 맥주 가격 인상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 모(경영3)은 "개강 초에는 술자리를 자주 가지는데 맥주가격이 올라 부담스럽다. 한 두 고이 아니라 일대 주변술집은 모두 가격이 올라 담합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 수강신청 접속 오류, 올해도 여전

### 구식 서버, 학생들 '매크로' 접속이 주 요인

지난 달 12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수강신청이 접속 오류를 일으켜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많은 학생들이 정보관리실과 교무팀에 항의 전화를 하고 나의 주장 게시판에 항의글을 쓰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허재웅(회계2)은 "아침 일찍 일어나 수강신청을 준비 했지만 2시간이 지나서야 접속이 됐고 강의 여부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접속오류가 심했던 이유에 대해 정보 관리실 측은 "오래된 서버와 접속 방식이 주된 원인"이라며 "학생들이 다른 학기보다 더 불편을 겪은 이유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대폭 늘어난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사이에서 공공연히 사용돼 오던 것으로 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미리 대처하지 못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보관리실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드리고 2학기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내일(4일)부터 있을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대해서 정보관리실 장기복 직원은 "서버 접속 경로 확대 등 학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학기부터 수강신청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하던 방식에서 웹페이지를 통한 접속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접속한 후 활동이 없는 사용자들은 순간적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공간을 양보하게 돼 이전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신 서버로 교체 접속 후 로딩시간 단축과 동시접속자 수를 확대시킬 방안이다. 2학기부터 수강신청 방식이 바뀐다는 소식에 임소라(신방2)양은 "매년 발생하는 오류에 이제 화가 난다"며 "바뀐 수강신청 방식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이런 불편을 안겨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 기술이전 사업·논문 발표 활기

산업계에 보유기술을 제공하는 우리학교의 기술이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기술은 백만장 발생원천을 위한 DNA칩 등 질병진단과 치료에 응용 될 수 있는 미래형 바이오 원천기술로 평가된다. 또한 김소연(화학) 교수팀은 지난 2월 단백질 칩을 이용한 질병진단 관련 논문을 세계최고의 의학전문지 Clinical Chemistry에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나노바이오칩을 이용해 질병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나아가 환경유해물질 검사 및 신약개발에도 응용될 전망이다.

산업계에 보유기술을 제공하는 우리학교의 기술이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기술은 백만장 발생원천을 위한 DNA칩 등 질병진단과 치료에 응용 될 수 있는 미래형 바이오 원천기술로 평가된다. 또한 김소연(화학) 교수팀은 지난 2월 단백질 칩을 이용한 질병진단 관련 논문을 세계최고의 의학전문지 Clinical Chemistry에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나노바이오칩을 이용해 질병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나아가 환경유해물질 검사 및 신약개발에도 응용될 전망이다.

## 본사사령

- ◇ 임 신임부장 ▲ 웹미디어부 부장=고석현(법과대 법학3)
  - ◇ 임 차장 ▲ 대학부 차장=정동훈(사과대 경제2)
  - ◇ 임 정기자 ▲ 문화부 차장=윤혜경(공과대 기계공2)
  - ▲ 배종성(사과대 신방2)
- 이상 3월 3일자

# ‘로스쿨’ 불교계·학교 공동대응

## 행정소송 제기 ... 5백만 불자 서명운동 등 추진

우리학교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과 관련해 학내의 구성원들의 충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과 불교계의 공동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학교와 불교계는 조계종 중립 동국대학교 로스쿨 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대책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태스님(영천 은해사 주지)을 선출했다. 로스쿨대책위는 종단과 학교 인사들이 포함된 실무위원과 정책위원들을 구성해 9월 본인 가까이 로스쿨 유지를 위한 5백만 불자 서명 운동 등 다각적인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을 결의했다.

학교 측은 예비인가 잠정보도 직후 오영교 총장이 교육부를 향한 방문하고, 우리학교 로스쿨 탈락의 부당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재단 이사장 영배스님과 전순표(농학57졸) 총동창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원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

교수회, 석림동문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은 잇단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1일에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로스쿨 인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집단 항의 시위를 벌였다.

우리학교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지역안배조항에 대한 법학 교육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과 심의내용이다.

이번 인가 심사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전국을 다치게 권역으로 나누어 심사한 뒤 유일하게 수도 권역내에서만 또 다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권역으로 나누어 아주대 이하대 강원대를 우선 배정했다. 이는 같은 수도권역내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의 이중 잣대를 재차 적용하여 우리대학보다 낮은 순위의 대학은 선정되고 우리학교는 탈락하는 역차별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로스쿨 법률팀(팀장=정용상 학장)은 최성호(법학) 실무교수를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

태다. 현재 우리학교는 지난 7일 서울 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관련서류의 조작 및 폐기를 금지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과 이어 20일에는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및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 청구 등 총 3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통상 3심까지 최대 1년 이상의 소송기간을 고려한다면 내년 3월 전제 로스쿨 개원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측은 로스쿨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비판적인 흐름으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현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3천 명 이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재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소송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여 다른 대학들과 법적 공동 대응을 계속해 나 갈 예정이다.

한편 학내외에서는 그동안 로스쿨 유지를 위한 우리대학의 투자가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비대위 의견에 대해 법과대학 정용상 학장은 “본의 아니게 동국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대외적으로 로스쿨 총 정원 확대 및 공평한 재심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학교 로스쿨 추진팀(TFT)은 예비인 가신청서를 재검토하며 본인가 대비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 대책위에서 최순열(국어교육) 학사부총장은 “앞으로 불교계와 우리학교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 우리학교의 로스쿨 인가 신청에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며 종단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 야간강좌 선거, 9명 찬성에 당선?

## 학칙근거 없는 모바일 선거는 사실상 ‘공개투표’ 지적

지난 해 말 치러진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선거가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위배된 채 전 총대의원장의 독단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12월 28일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투표’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야간강좌 학생들에게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학교 로스쿨 추진팀(TFT)은 예비인 가신청서를 재검토하며 본인가 대비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 대책위에서 최순열(국어교육) 학사부총장은 “앞으로 불교계와 우리학교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 우리학교의 로스쿨 인가 신청에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며 종단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그러나 △입후보과정 △선거 시기 △선거진행방법 등 대부분의 선거진행과정이 선거시행세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졌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선거의 적법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이 야간강좌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야간강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턴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 두사람 모두 선거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그동안 대담을 회피해 왔다.

또한 정평주 전 총대의원장은 학칙상 작년 말까지 총대의원장직을 맡도록 돼있어 야간강좌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퇴가 전제돼야 했다. 그러나 정평주는 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에 공식적인 사퇴를 하지 않았

다.

이 외에도 재학생 및 휴학생의 구분이 모호한 방식 중 선거를 진행해 유권자 해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선거가 모바일 상 진행돼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은 점, 선거 직후 투표결과가 공개 되지 않은 점 등에서 야간강좌 총학생회 선거의 공정성이 상당히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단과대 학생회장 및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라인호·생물4)는 현재까지는 정평주 전 총대의장을 야간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선거기본원칙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채 극소수만이 참여해 선출된 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 학내단신

##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일(4일)부터 사흘간

200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정정이 내일(4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오전 8시 30분부터 24시간 진행되며 방식은 기존 수강신청과 동일하다. 정정기간 동안은 모든 학년이 이용 가능하다.

## ‘좋은 교사 되기 경연대회’ 오늘(3일)부터 신청

‘좋은 교사되기 경연대회’가 사범대학(학장=이혜숙·국어교육) 주최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수업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역할극으로 시연하여 효과적인 교수 학습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로 계획됐다.

참가신청은 오늘(3일)부터 21일까지 받으며, 참가자격은 교원임용 고사를 준비 중인 사범대학 소속의 2~4학년, 교직과정 중인 3.4학년 재학생, 교육대학원 재학생이다. 신청은 발표 방법과 학생 지도안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hyo411@dongguk.edu)로 보내면 된다.

## 제2기 동국 108리더스 3학년 대상으로 모집

제 2기 예비 동국 108리더스를 오늘(3일)부터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3학년 재학생(5.6학기 등록생)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매주 2시간씩 리더십 전문 프로그램을 교육받으며 리더십 캠프 및 워크샵, 겨울방학 해외봉사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동국 108리더스 클럽 멤버 자격과 각종 취업 인턴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등의 혜택 등이 함께 제공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오는 28일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경력개발원에 문의하면 된다.

## 문과대, 고치대 학술협정 교환학생 공동연구 추진

문과대학과 일본 국립대학법인 고치대학 인문학부 및 교육학부가 지난 달 12일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은 학생 교류(학부생, 대학원생)와 교수 및 연구원 교류, 학술자료와 공동연구 진행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상대 대학에 파견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 수는 일 년에 3명 이내로 한 학기 혹은 일년간 체류할 수 있다.

# 학교 보직 · 직원 인사

본교 보직인사가 지난 2월에 중 다음과 같이 단행됐다.

△학생경력개발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이심열(가정교육과) △국제화추진단 외국인서비스센터장=박광현(국어국문학과) △교양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교육부장=윤현숙(영어영문학과)(이상 2월 5일자)

△법과대학장=정용상(법학) △

불교대학원 부원장 겸 불교대학 부학장=김용표(불교학) △생명과학대학 부학장=강호덕(산림자원학)(이상 2월 26일자)

직원 인사는 다음과 같이 단행됐다.

○실·팀장 인사  
△법과대학 학사운영실장=류병성 △입학처 입학기획팀장=김진환 △운영지원본부 총괄지원팀장=유한림 △중앙도서관 학술정

보서비스팀장=김병훈 △운영지원본부 구매팀장=박근서 △산학협력단 R&D사업팀장=박정훈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사운영실장=윤동규 △사업개발본부 대외협력실장=박광호 △전략기획본부 전략예산팀장=신기훈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장=김성근 △공학교육혁신센터 행정지원팀장=황주환 △동국미디어센터 대학미디어팀장=조원생 △학사지원본부 학생서비스팀장=이전중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장

=강형석  
○일반직 인사  
△경영관리실 혁신관리팀=허부강 △전략기획본부 전략예산팀=유광호 △운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김태식 △운영지원본부 구매팀=김종기 △전략기획본부 전략예산팀=이혁준 △전략홍보실=변재덕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사운영실=김영수 △입학처 입학관리팀=박종현 △사업개발본부 대외협력실=백승규 △문화예술원 행정지원실=김대욱 △산학협

력단 R&D사업팀=홍석화 △입학처 입학기획팀=주현석 △운영지원본부 총괄지원팀=김중주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이동규 △학사지원본부 학생서비스팀=이익성 △교양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송민수 △국제화추진단 국제교류팀=김상우, 김정민, 김미라 △문과대학 학사운영실=김홍모 △운영지원본부 총괄지원팀=이진복(이상 2월 4일자)

한편 지난 1일자로 신규교원 15명이 임용됐다.

# 인전무대

## 그들만의 사전

○... 국어사전  
매크로(macro)[명사] :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을 매크로라고 한다. 여러 번 해야 하는 일을 사용자가 명령을 지정해 간단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동약포에서

## 최저가 캠퍼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난달 13일 학림관 사범대학 사운영실에서 격렬한 실망이 감아졌다. 마구잡이로 들이닥친 공사 인부들과 그들을 제지하려는 학사운영실 직원들 사이에 대치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사건은 학림관 리모델링 시공업체가 하청업체 측에 지난 해 9월부터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일어났다. 연이은 임금 체불에 참다못한 인부들이 학사운영실에 난입해 이미 공사가 완료된 천장과 벽면을 파손한 것이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빚은 이 사건은 시공업체 측 대표와 인부들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가입찰제’라는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있다. 최저가입찰제란 시공업체 선정 시, 가장 낮은 공사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건설 분야의 한 전

문가는 “이 제도로 시공비용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공정 곳곳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한다.

사실 최저가입찰제는 시공비용을 낮추기 위해 값싼 저품질 자재를 사용하고 최소한의 노동력 투입으로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심지어 위 사건처럼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최저가입찰제의 폐단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공사과정상 발생하는 변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지연되는 공사는 강의에 많은 지장을 준다. 장마철 호우로 지연된 학림관과 동국관 리모델링 공사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저가입찰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격심사제가 있다. 이 제도는 공사비 외에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 제도 또한 엄격한 평가 기준이 없다면 과다경쟁과 유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된다면 완성도 높은 공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모품과 전자기기 같은 경우, 최저가입찰제는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리모델링과 건물신축은 한 번 완공되면 수정이 어려운 향후 10여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다. 건설 분야에서 최저가입찰제만 채택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완성도 높은 시공을 추구하는 것이 학교와 학생 모두를 위한 방법이 아닐까.

배종성 기자  
baessi03@dongguk.edu

# 수석 입학자를 만나다 꿈으로 가득 찬 그들, 동국에 설레다



왼쪽부터 예체능계 수석 차새날(영화영상1), 자연계열 수석 김지수(생과대1)

‘수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부러움과 함께 거리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올해 자연계열 김지수(바이오)학생, 예체능계 차새날(영화영상1)학생은 그렇지 않았다. 자신을 낯설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매너 수석’ 그들을 만났다.

김 : 수험생활 동안 입시공부에만 매달려 지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배낭여행을 가보고 싶고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싶다. 또 지금까지 자연계열 공부에 치중한 만큼 인문·사회계열 공부를 하고 싶다. 특히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역사나 철학 관련 강의를 듣고 싶다.

차 : 영화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제일 크다. 우선 기하학, 심리학, 철학 같이 다양한 학문을 배워 기초를 탄탄히 해보고 싶다. 그러나 수강신청이 실패해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하지 못해 걱정이다.

- 우리학교에 기대하는 바는.

김 : 남산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우리학교 캠퍼스가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캠퍼스를 만들었으면 한다. 수강신청을 할 때 느꼈던 행정서비스 불편은 개선 됐으면 한다.

차 : 이런 말이 생각난다.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나쁜 영화가 나올 수 있지만 나쁜 시나리오에서는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처럼 학교가 학생들이 탄탄한 기초 소양을 뉘을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한다.

정동훈 기자  
gid1226@dongguk.edu

수강신청사전  
매크로(macro)[명사] : 일부 학생들이 수강신청 기간 시 자주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방해하고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킨다. 복잡한 수강신청을 간단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가 극단의 이기주의를 발휘하여 사용한다.

육두문법  
○... 08학번 새내기 : 교수님! 이런 뭘 어떤 수사법을 써야 하나요?  
교수 : 어떤 상황인가?  
08학번 새내기 : 저는 지방 새내기인데 단과대 오리엔테이션 하루 전날 저녁에 필히 참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디.

교수 :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욕을 표현방식으로 하는 육두문법을 한 번 써보게.

08학번 새내기 : 이것은 새내기 없는 OT, 이런 @#%#@#

신입생 길들이기  
○... 체육관으로 그대 부르겠소. 운동장으로 그대 부르겠소. 하나 둘 셋. 파티제초, 토끼뽀, 얼차려 간혹 속웃 바람도 시키겠소. 선배들 기합준다 거역할 리 없소.

학교는 모든 척 할라요. 후배 분들 억울하다 말하걸랑, 내년엔 09학번 마음껏 굴리면 되잖소.

왜 하나냐면 웃지요.

총성! 독점정신  
○... 멋진 제복 우렁찬 구령소리의 그대 이름은 학군단.

졸업식 날, 명진관 사진배경 독과점의 그대 이름은 학군단.

사과(apple)를 먹었나, 사과(謝)를 했나. 인습의 왕자들- 그대 이름은 학군단.



“우리는 108리더스입니다” ... 제 1기 동국 108리더스 수료식이 지난 21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102명의 1기 108리더스는 리더스 클럽을 운영하며 제 2기 108리더스의 멘토 역할 및 대외 활동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2	3
1	4	5	

1. 라오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
2. 출발하던 날 공항에서 단체사진
3. 초등학교 교육봉사 - 동물기연 만들기
4. 위양개오 마을 운동회
5. 한국의 문화를 알려준 소고춤 공연

# 천국에 있었던 열흘, 콤포이 라이라이...

## 제1기 동국 108리더스

### 라오스 해외봉사 수기

라오스에서 열흘을 보낸 후, 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더 욕심내지 않고, 더 보채지 않고 지금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웃음과 사랑뿐인 라오스 사람들, 함께 한 이들과의 따뜻한 시간 덕분일 것이다. 계산도 욕망도 멈추는 그곳, 라오스.

지난 1월, 나를 포함한 '동국 108리더스' 겨울 해외봉사단 46명은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인민공화국으로 9박 10일간의 해외봉사를 떠났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위치한 위양개오 마을. 그곳에서 우도를 처음 맛은 것은 붉은 면지와 뜨거운 햇볕, 맑고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눈망울이었다. "짜바이디. 커이쓰 주엔. 짜오쓰냥?안녕. 난 주현이야. 이름이 뭐니?"

라오스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말은 몇 가지 없었지만, 라오스의 천진한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나는 내가 건 말의 몇 배나 되는 미소를 받았다.

"짜바이디"만 외치면,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라오스 친구들의 손을 잡고 "느응쑈옹싸안"을 외치며 포크댄스를 추면서, 그림을 그리고 물감놀이 할 하면서, 아이들에게 숫자 읽는 법을 배우고 (결국 1부터 99까지 세는 법을 배웠다!)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펴고 점으며 숫자놀이를 하면서,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우리 108리더스 모두가 그렇지 않았을까?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도 나도 함께 즐거웠다. 봉사란 무엇일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빈곤한 그들'을 보며 우는 것이 아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과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 그저 '함께 웃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새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다지고, 벽돌을 쌓던 시간. 마음을 다해 준비해간 교육봉사와, 떠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문화공연. 떠나던 날, 온 마을사람들이 모여 우리를 귀빈처럼 대해주었던 흥겨운 운동회와 마을축제.

짧은 시간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라고, 그리고 정을 준 그들의 아쉬운 눈물을 보며 나 역시도 코끝이 시큰거렸다.

돌아오던 날 한국에는 폭설로 눈이 많이 쌓여있었다. 평생 눈을 직접 보지 못한 그곳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처럼, 무엇이든 나누고 사랑하고 웃으며 살겠다고 맹세했다. 내가 행복한 것, 그리고 너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새기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꿈결 같은 열흘을 보내며, 나는 저마다의 매력과 배울 점이 넘치는 수십명의 동료들을,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따뜻하고 행복한 라오스라는 한 나라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어떤 것 보다는 값진 선물이었다.

이번 제 1기 동국 108리더스의 해외봉사활동이 내가 살아온 22년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획이 되었다고 믿는다. 제 2기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값진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후배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다.

콤포이, 라이라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글=이주현(수학4)

사진=홍의찬(수학4), 김다운(신병4)

##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건 현장리포트

### 참혹한 기름유출 현장 ... 생각보다 훨씬 참담 오염 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도 걱정



우리학교 참사랑봉사단(단장=조호영·물리학)이 방학 중인 지난 1월 10일 기름 유출 지역인 태안군 소원면의 백리포를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학내구성원 약 85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오전 10시부터 밀물시간인 오후 3시까지 4시간 가량 바위에 묻은 기름제거를 위주로 활동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방제복은 학교 측에서 준비한 우비로 대체했다.

이와 함께 고무장갑, 마스크, 장화 등도 시켜면 기름때로부터 옷과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됐다.

현장에 도착한 후, 언론에 비취진 것보다 훨씬 참담한 모습에 봉사단은 일제히 안타까운 탄성을 자아냈다. 박미주(생명화학공4) 양은 "직접 와서 보니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봉사단에는 많은 교직원들도 참여해 일손을 보탤었다.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참가하게 됐다"고 밝힌 윤명철(교양교육원) 교수는 검은 바위들 가운데 발견한 작은 참게 한 마리에도 감사해 하며 한겨울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는데 여념이 없었다.

일부 남학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위절벽으로 올라가 손이 닿지 않는 곳 위주로 작업을 했다. 이들은 방제복으로 입은 우비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기름제거 활동에 열의를 보였다. 노란 우비의 참사랑봉사단원들은 밀물이 들어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기름제거에 열중하다 집합을 알리는 소리에 안타까운 탄식을 내뿜고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했다.

이러한 참사랑봉사단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았다. 기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공된 물품들이 봉사가 끝난 후 한곳에 모아지지 시작했다. 우비와 고무장갑의 경우 기름때가 가장 많이 노출돼 재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우비는 금세 찢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두 세벌을 사용한 봉사자도 있었다. 그날 사용된 물품들 가운데 장화만 다시 학교 측에서 가져갔을 뿐 나머지는 모두 버려졌다.

이 뿐만 아니다. 봉사단의 점점으로 제공됐던 도시락 역시 모두 일회용품으로 구성된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스티로폼 용기 따위가 여기저기 즐비했다. 이러한 일회용품 쓰레기터미를 보고 있노라면 바다에 떠있는 기름만이나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보였다.

현재 약 100만 명이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이 유출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 수많은 봉사자들이 벗어놓은 비닐 옷과 고무장갑, 먹고 남은 일회용품들이 매일 수북이 쌓여간다면 큰 문제 아닌가. 심지어 매일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 가운데 미처 폐기하지 못한 비닐 옷 등에서 나온 기름이 다시 땅속으로 스며들어 2차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무조건적으로 자원봉사자만을 기름유출지역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인력으로 체계적인 기름제거 활동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루빨리 기름유출 지역이 일회용품, 폐기물 등에서 만이라도 벗어날 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나리 기자  
vki26@dongguk.edu

# 하얀 눈처럼 순수함으로 돌아가기

## 오타루 눈빛거리 축제

### 일본 자원활동 체험기

"오겐끼데스까, 와타시와겐끼데스." 영화 '러브레터'를 미처 보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이 유명한 대사 한 마디는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주인공 후지이 이츠키의 고향이자,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항구도시 오타루.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거리가 가장 아름다울 시기인 2월, 매년 오타루에서는 '오타루유키아카리노미치(小樽雪あかりの路: 오타루 눈과 촛불의 거리)'라는 축제가 열린다.

나는 올해 제10회를 맞게 되는 축제에 한국인 자원활동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2003년, 제5회 축제에 8명의 한국인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성장하는 축제와 함께 한국인 자원활동단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올해

는 특히 'OKOVO(Otaru snow gleaming festival KOrean VOlunteers)'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여러 회장 중 한 곳(이하B 회장)을 OKOVO만의 전용회장으로 꾸몄다. 자원활동가들은 축제가 열리는 곳곳에서 활동한다. 초반 2-3일은 설상을 제작하고, 본격적인 축제 기간에는 촛불 관리와, 설상의 보수, 그리고 관광객들이 축제를 더욱 더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대의 활동'이 붐이 되고 있다. 공모전이며, 홍보대사며, 자원활동이며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이다.

물론 개인적인 흥미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취업에의 끈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시 밀려 경력을 쌓기 위해 활동하는 학생들의 수도 적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장래, 축제의 스태프로 일하고 싶은 일어일문학과 학생에게, '유키아카리노미치'는 축제와 일본이라는 커다란 관심사 두 가지가 잘 조화된 큰 판이었다. 놓

칠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난 후,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축제와 오타루를 사랑하게 되었다. '오타루유키아카리노미치'는 너무나도 인간적이다.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꾸민 거리위에 작은 촛불을 놓고 불을 밝힌다. 그 빛 속에 오타루 시민들, 축제 스태프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본인 자원활동가들, 국경을 초월한 해외 자원활동가들, 눈과 촛불의 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감동이 있다. 서툰 솜씨로 만든 어설피 촛불을 보고 미소 짓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행복을 느꼈다.

양말을 다섯 겹이나 신어도 발이 썩공 얼어버릴 만큼 매섭게 추운 날씨.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포근함과 따뜻함과 마주했다. 한국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독한 '오타루 후유증'에 걸려있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오타루의 시리도록 하얀 거리에서 있는 것만 같다.

가끔은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렵다.

글=정유리(문과대 일본3)

사진=OKOVO 영상팀 한현신



	1. 눈 쌓인 오타루 축제 거리의 전경
	2. 축제의 완성은 눈과 빛의 조화
1	2



기획연재 - 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① 등록금 문제의 본질

# 국가재정 지원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

## 소득수준 고려, 고등 교육비 지원 확대 ... 등록금 후불제 가장 적합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전국의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적게는 6%, 많게는 14%까지 인상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 인상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동대신문은 등록금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근본적인 갈등원인을 알아보고자 연재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 글 쓰는 순서

1. 등록금 문제의 본질
2. 우리학교의 등록금 인상요인 및 재정확보
3. 재단과 종단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문제 해결방안
4. 외국대학의 모범사례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등록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최근 수 년 간의 통계를 보면, 거의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하고 있어 등록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는 고통은 엄청나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일부 학생들은 등록을 포기하기도 하며, 또 어떤 학생들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지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 대학등록금이 비싼 이유

왜 등록금은 언제나 일반 물가상승률에 비해 많이 올라야 하는가?

Paul M. Sommers는 등록금 인상 원인을 대학의 담합 행동으로 설명한다. 그는 1981~1997년까지 16년간의 아이비 그룹을 포함한 미국의 소수 명문 사립대학들의 수업료 인상을 추적 분석한 결과 이들의 수업료 인상패턴에 담합의 흔적이 있음을 밝혀냈다. Wall Street Journal은 아이비리그 대학의 등록금담합 행위를 "OPEC가 부러워할 가격결정 체제"라고 비난한 바 있다. 2007년 한국에서도 대학 기획처장들이 등록금인상 결정 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대학들의 등록금인상 담합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Ehrenberg & Murphy는, 대학 측이 대학 교육비의 실제상승을 과장하고 있어 과대한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수업료 인상을 공급측면에서 다룬 학자로는 Baumol이 있다. 그는 비교역서비스(non-traded service)인 고등교육의 생산성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은 투입물들의 임금(교수와 기타 전문직들의)상승률과 함께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재나 또는 생산성이 높은 타 재화들의 시장가격보다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Robert C. Dickeson은 대학등록금이 비싼 이유로서 대학교육의 노동집약적 성격, 고 관리비와 저 효율성, 정부의 과도한 규제, 고가의 투입물, 학생들의 요구증가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시장화로 인한 국가의 재정지원 축소에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의 시장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국가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교육지표와 정책으로 확인되고 있다. ①사립대학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사립

상 영리기관화 되어 있으며 ②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는데다 ③대부분의 교육재정이 사적 부담에 의해 운영되고 ④소득대비 수업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⑤대학교육에서조차 사교육비부담이 상당하며 ⑥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는 데다 ⑦등록금 인상을 가져 올 국립대학의 민영화(사립화)가 추진 중인 점 등이 그 증거이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증가 즉, 수업료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표 1>에서 OECD 회원국들의 수업료를 비교해 보면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시장화 정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업료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은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수업료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여기서 국가적 통제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의 공급방식은 다양하다. 무상으로 공급되는 국가도 있으며, 고가에 판매되는 국가도 있다. 공공연하게 가격차별이 이루어지는 국가도 많다.

### 교육비 지원 OECD 국가 중 최하위

최근 대학등록금 인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지만, 대부분 논의의 초점을 단순히 등록금 액수자체나 인상률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에게 있어 등록금은 대학교육을 받는 비용이지만, 대학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며, 국가차원에서는 사회 각 분야 발전의 기반구축 비용이 된다. 따라서 첫째, '저소득층이 무리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가' 둘째, 교육비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만한 수준인가' 셋째, '국가의 지원은 충분 한가'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등록금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대학생1인당 연간 공공교육비가 세계최저 수준이다. <표 2>에서 보듯이 한국의 학생1인당 고등교육비는 2002년을 기준으로 겨우 US\$6,047에 지나지 않아, OECD평균 US\$13,343의 절반수준도 되지 못하며 미국의 1/3에도 이르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표 2>에 나타난 국가들의 중등학생1인당 교육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 액수는 미국과 일본의 초등학생1인당 교육비보다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세계 100위권 내의 대학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등록금 수준이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높다. 미국 대학과 비교해 보자. 2004년 기준 미국의 1인당 GDP가 \$39,700인 상태에서 수업료와 기숙사비 및 식비를 포함한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13,833이고, 사립평균은 \$29,500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4,100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간 650만원이 넘고 국립대학은 350만원에 이르고 있

다. 여기에 미국처럼 숙식비 등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등록금수준은 미국보다 결코 낮지 않다. 또한 미국의 사립대학이 전체의 27%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78%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등록금 부담이 훨씬 높아 세계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국가의 교육비지원이 너무 작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중이 전체 고등교육비의 15%에 지나지 않아 OECD 평균 78.1%의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민간부담은 81.5%로서 고등교육비의 대부분을 학생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고등교육이 시장화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부담 비율도 각각 54.9%와 58.5%에 지나지 않는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액을 우리 돈으로 환산(편의상 US\$1=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덴마크 1,486만원, 핀란드 1,133만원, 독일 1,007만원, 프랑스 795만원, 미국 926만원, 영국 851만원, 일본 485만원으로서 OECD 평균이 1,042만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단돈 90만원에 지나지 않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 민간 부담 낮추고 국가 지원 늘려야

대학등록금은 대학교육이 지닌 노동집약적 성격에다 대학 간 담합, 운영비용의 과장, 대학 간 경쟁의 격화 등에 의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등록금 책정에 있어 인상을 통제(상한제)와 경쟁에서 협조체제로 전환, 대학 간 담합감시,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한 결정 등이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또 등록금 문제를 대학생만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대학교육비를 묶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충분한 교육비 확보가 있어야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교육비 수준은 대학교육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시장화정책에 따라 국립대학까지도 대학이 등록금 결정권을 갖고 있어 대학등록금 수준은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접근을 방해할 만능 놀다. 여기에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등록금 문제가 검토되고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등록금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학자금융자제도의 확대는 학생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며, 등록금의 절반수준 이하수준은 대학교육의 질을 후퇴시킬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국가의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부담은 낮추면서 전체적으로는 고등 교육비를 지금보다 증액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등록금 후불제이다.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그 수익자인 국가와 개인이 사후에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법국민적 연대가 필요하다.



박 정 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표 1> 주요국 4년제 대학 연간 수업료 (2003/2004, US\$, PPP환산액)

구분	국립대학(지국민기준)	사립대학
호주	5,289	13,420
캐나다	3,267	자료 없음
덴마크	수업료 없음	자료 없음
핀란드	수업료 없음	수업료 없음
프랑스	156 - 462	500 - 8,000
이탈리아	983	3,992
일본	3,747	5,795
대한민국	3,623	6,953
네덜란드	거의 없음	1,565
뉴질랜드	2,538	3,075
노르웨이	수업료 없음	4,000 - 6,500
스페인	801	자료 없음
스웨덴	수업료 없음	수업료 없음
스위스	566 - 1,132	자료 없음
영국	거의 없음	1,794
미국	4,587	17,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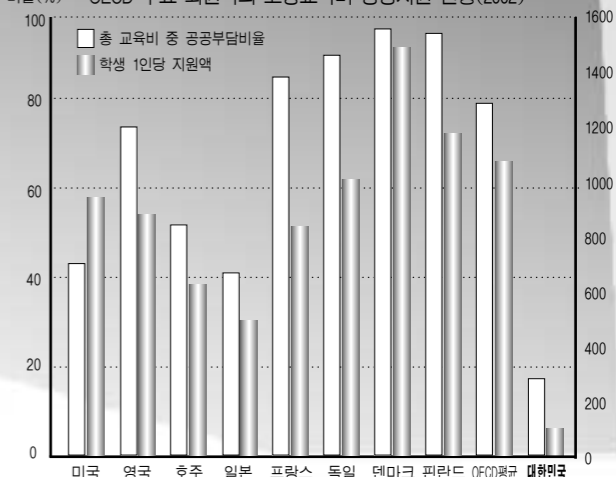
자료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표 2> 국가별 학생1인당 공공교육비 현황 (2002, US\$, PPP환산액)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미국	8,049	9,098	20,545
영국	5,150	6,505	11,822
일본	6,117	6,952	11,716
호주	5,169	7,375	12,416
프랑스	5,033	8,472	9,276
독일	4,537	7,025	10,999
덴마크	7,727	8,003	15,183
핀란드	5,087	7,121	11,768
대한민국	3,553	5,882	6,047
OECD평균	5,273	6,992	13,343
말레이시아	1,897	2,923	14,405

자료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비율(%) OECD 주요 회원국의 고등교육비 공공지원 현황(2002) 단위(천원)



### 학점은행제 시행교육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 2008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

과정명	분 야	세 부 과 정 명
특별 교육과정	문화, 경제	아트마켓&아트테크(일반과정, 전문과정) 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에게 듣는다! 비즈니스 스피치 CEO과정 부동산재테크, 펀드투자의 정석
자격증 과정	대명교협	주산활용수학교육사, 가요전문지도사, 아동미술실지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한문지도사
	민간자격	커리어전문가, 아르마테라피Diy창업, 한국전통다례지도사, 한자지적시험, 표현예술치료1단계~6단계, 선유도
	국가공인	화훼기능사
불교과정	불교전문반	불교미술사, 화엄사상, 선사상, 정토사상, 참선수행 * 5학기 수료 후 총장명의 불교학사인정서 수여
	불교교양	불교의식실용반, 불교무용반, 불교정통꽃꽂이, 명상심리치유사 불교관련무엇인가, 경전연구, 불교한문, 참선수행, 불교상담사
교 양	동양철학	명리학, 사주명리전문가, 기문정명학, 육임, 성명학, 수성학, 인성과학, 생활풍수, 현공기풍수인테리어, 주역(무료강좌)
	문화·예술	가요감정, 문인화, 사군자, 서예, 전통민화실기, 전통생활자수, 한지화, 고전전통무용, POP(송글씨)창업반, 데크파주
사이버 강좌	총장명 의적	주산활용수학교육사 (http://cyber-edulife.dongguk.edu)

**2. 접수기간**  
2008년 2월 1일(금) ~ 2월 29일(금)

**3. 문 의 처**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 02) 2260 - 3729~30

http://edulife.dongguk.edu

### 정각원 토요일법회 및 불교 강연회 안내

현직 불교대학 교수들이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현대불교의 세계적 흐름까지 불교에 대한 인목을 키워드리며, 수행자 스님들의 수행법과 살아있는 생활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즐겁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 장 소 : 서울캠퍼스 정각원 법당
- 대 상 : 일반인 및 동국 가족
- 법회 일정

월	일	주 제	강·법사	비 고
3	8(토)	불교의 이해와 신행	총호 스님	정각원장
	15(토)	불교와 경제	우승택	삼성증권 Fin Honors, 호철산리자점장
	22(토)	관음상의 성립과 실천	법산 스님	전 불교대학원장
4	29(토)	위패사신 수행의 이해	미가 스님	천안 민일사 주지
	5(토)	생활법회	해담 스님	광주 각학사 회주
	12(토)	반야사상의 성립과 전개	김성철	불교문화대학 교수
5	19(토)	선재조의 심신수련	인도 스님	양산 금강사 주지
	26(토)	성지순례	김창균	예술대학 교수
	3(토)	생활법회	영애 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6	10(토)	내 인의 부처(여래정사상)	총호 스님	정각원장
	17(토)	현대불교의 역사	김미숙	불교대학 강사
	24(토)	진언수행의 이해	해장 정사	수원 유가심인당 주교
7	31(토)	불교와 문학	최순열	동국대학교 부총장
	7(토)	생활법회	심산 스님	부산 출법사 주지
	14(토)	대승불교의 성립과 전개	계환 스님	불교대학 교수
8	21(토)	성지순례	윤영수	기회인화리불교관장
	28(토)	법화/열반 사상의 이해	지창규	불교대학 교수
	5(토)	생활법회	현각 스님	원주 상행사 주지
9	12(토)	종관사상의 구조	김성철	불교문화대학 교수
	19(토)	아미타 신앙의 이해	선용 스님	음성 용운사 주지
	26(토)	불교와 경영	오영교	동국대학교 총장
10	9(토)	생활법회	정안 스님	조계종 총회위원장
	16(토)	법구경의 가르침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
	23(토)	티벳불교의 역사	인성두	금강대학교 교수
	30(토)	불교음악의 이해	능화 스님	태고종 문화부장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정각원

퇴임교수 인터뷰 - 동철 교수(이과대학 물리학과)

열정 = 학문 x 학생<sup>2</sup>, 열정의 상대성 이론을 믿어라

가득히 쌓인 연구서적들과 차곡차곡 갈무리 해둔 물품들. 동철(물리학) 교수의 연구실은 '마지막'이라는 분위기가 한껏 느껴졌다. 그 가운데서 눈길을 끈 것은 최근 판서한 흔적이 역력한 칠판이었다. 칠판에는 갖가지 물리학 수식들이 빼곡했다.

"최근 물리학의 동향과 학생들의 질문을 풀이한 것"이라고 말하는 동 교수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83년도부터 25년간 캠퍼스에 몸담은 그였지만 아직 하고 싶은 연구도 남았고 가르치고 싶은 것도 많다는 감회가 칠판 속에 모두 담겨 있는 듯 했다.

역사의 흐름과 함께한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해방 이후 부모님과 함께 월남하여 무일

푼으로 시작했다. 젊은 시절에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직접 경험하며 격한 시절을 보냈다. 교수 생활을 막 시작했던 때도 연구실 안에 최후의 연기가 빠져나갈 새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어려운 시절에 학업을 계속하기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동 교수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부모님 덕분이다"라고 말을 이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시절에 외국 유학까지 갈 수 있었다. 그의 노모는 현재 98세. 노모 때문에 밤늦게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동 교수의 모습에서 냉철한 학자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면모가 엿보였다.

평소 학업이 짜기로 정평이 나있는 그. 그것은 '알아야 할 건 하늘이 무너져도 알아야 한다'라

는 확고한 교육철학 때문이다. 사실 동 교수는 상당수 '골수 팬'을 이끌고 다닌다. 엄격하지만 내실 있는 강의를 듣고 싶은 학생들이 일부러 그를 찾아다니는 것이다.

그의 퇴임 후 계획도 '연구와 학생'이라는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앞으로 사설 연구소를 설립해 물리학 연구와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이 꿈이라며 열정을 과시했다.

"요즘 학생들은 너무 가벼운 것 같아. 하고 싶은 일에 전심전력한다면 언젠가는 이뤄지지 않겠어?"하고 조언하는 동철 교수. 변치 않는 제자 사랑과 연구열이 그의 퇴임을 더욱 아쉽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배종성 기자  
baess103@dongguk.edu



2008학년도 1학기 신입교수

**경영전문대학원**



**유 효 상**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

**영어영문학과**



**James H. Life**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외국인 조교수

**경제학과**



**김 광 환**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신문방송학과**



**황 하 성**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전기공학과**



**정 진 우**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조교수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기업을 정신에 특화된 MBA과정의 수업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레는 요즘입니다.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또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자로서의 마인드와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지 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양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식품공학 △연세대학교 식품생물공학 석사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Executive MBA △인터벤처(주) 대표이사

In the heart of Seoul are three elephants, the soul of Dongguk University. Over a hundred years old and still growing - impressive by any measure. It is my pleasure and pride to now be associated with this proud university and I look forward to meeting the challenge of maintaining your high standard. Most important, I look forward to meeting and working with staff and students here at Dongguk University.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and as a new part of Dongguk University I hope to work with others to help make the whole a continued source of respect and harmony with the three elephants that represent the spirit of this school.

△영어교육전공 △University of Victoria Secondary Education △University of Victoria Curriculum Studies 석사 △안산공과대학 전임강사

대학 입학하고 처음으로 경제학을 접했을 때의 그 막막함을 아직 잊을 수가 없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입장이 바뀌어 동국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제학의 여러 분석방법들이 실제 생활에 일어나는 문제에 어떻게 유익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많이 보여줌으로써 경제학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친숙한 학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서경제학전공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

인생은 새로운 인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국인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생활,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하루하루 앞서가는 기술로 현재의 언론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미래의 미디어, 그 안에서의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함께 공부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방송영상론 전공 △Indiana State University Communication △Temple University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 Mass Media 석사 △Temple University Mass Media & Communication 박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의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사립 동국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환경요인을 유발하고, 점점 고갈 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연료전지 등)는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전력시스템의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며, 앞으로 기업체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교육과 연구 모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력계통 전공 △한양대학교 전기공학 석사 △The Ohio State University 전기공학 박사 △삼성SDI 책임연구원

**불교학부**



**김 학 주**  
불교대학  
불교학부 조교수

**생명과학과**



**서 세 근**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조교수

**행정학과**



**박 채 기**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식품생명공학과**



**김 수 정**  
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

**교육학과**



**박 중 배**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화창한 봄 날,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로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사회적 모순과 병리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개발과 실행은 바로 우리 자신이 힘써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앞으로 전공 학생들은 물론 복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열정적이며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사회복지정책 전공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 △Washington University 경제학 석사 △Washington University 사회복지학 박사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동국인의 새로운 식구가 되어서 새로운 동국인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오늘날의 생명과학은 21세기 미래 발전의 중심이 되는 학문입니다. 또한 생물학, 의학, 농학 등 인위적 구분이 불가능해졌으며 상호 긴밀한 연계와 융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건강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생명과학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언제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미생물학 전공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과학 석사·박사 △울지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전임강사

100년 전통의 동국대 기풍을 저 자신에게 빠르게 내면화시켜 동국대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갖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학생들과 항상 열린 관계를 유지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타를 마하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일일행정학 전공 △전남대학교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우선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식품생명공학과는 식품의 응용 자연 과학 분야 에서 생명공학이라는 Biotechnology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 중 환경, 식량,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식품생명공학과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에게 가르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물환경생명과학 전공 △동국대학교 농학 석사 △미조리주립대학 토양환경학 박사 △강원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00년 전통의 명문 사학인 동국대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육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교육사는 과거의 교육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오늘의 교육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바로 역사가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학문과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사(한국, 동양) 전공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박사 △한국고원대학교 제1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영어영문학과**



**남 원 준**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생명과학과**



**이 재 영**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조교수

**사회학과**




**김 형 용**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전자공학과**



**박 강 령**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조교수

**교육학과**



**박 선 형**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가 교육목적인 동국대학교에서 서로 다른 문화간 소통을 다루는 한-영 통번역을 강의하게 되어 마음이 설레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한국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 앞장설 우리 동국인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영어통번역학 전공 △한국의국어대학교 영어 △한국의대통번역대학원 한영 석사 △한국의대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 박사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강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분자생물학 분야 박사학위를 한 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하던 중,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이재영입니다. 오늘날 생명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어디에까지 왔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지를 배우며, 생명과학을 통하여 생명체의 신비를 탐구하고자 하는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생물정보학 전공 △서울대학교 화학 석사·박사 △미국국립보건원(NIH,NIHDDK) Staff Scientist

상아탑으로 다시 돌아온 저에게 달라진 것은 이제 배움을 기다리고 지켜보는 이들 앞에 서게 되었다는 점뿐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실천이 함몰되는 세월의 변화가 야속하기도 하지만 사회부지를 통해 많은 학생들과 실천적 지성인으로서 함께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 뒤에서라도 동국인들과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북지사회학 전공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 △University of Georgia 비영리조직학 석사 △University of Georgia 사회복지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대표적인 명문사학으로 빠르게 발돋움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새로운 학생들과 만나고자 생각합니다. 무척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저는 최근 전자·여권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문, 홍채, 얼굴, 손가락 정맥 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식(Biometrics), 바이오영상신호처리 및 컴퓨터 비전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영상을 처리하고 디지털영상 내에 포함된 다양한 사물을 컴퓨터로 자동 인식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언제든지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멀티미디어신호처리 전공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조교수

교육행정과는 교육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법규·교육정책을 입안·집행하고 교수-학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정비·확립하는 수단적 봉사활동의 과업입니다. 따라서 교육행정과는 교육정책, 교육법, 장학, 교원인사, 지도성, 교육조직론, 의사소통, 동기이론, 학교경영 등의 하위 학습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에 대한 경제적·수단적 가치가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보다 나은 시민사회와 교육공공체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행정가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교육학도를 포함한 학생 여러분과 즐겁게 논의하는 따뜻한 소통의 자리를 가지고 싶습니다.

△교육행정 전공 △동국대학교 교육학 석사 △University of Tasmania 교육학 박사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부교수

### 달하나 천강에



이상일  
공과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 기후변화와 동국대학교

2007년은 가히 기후변화의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역사는 2007년을 지구는 더워지고 있으며 수권(water), 생물권(bio), 그리고 해양(ocean)이 이에 반응을 하고 있음을 인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래에 대해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한 해로 기록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대응, 그리고 인식의 확산에 관한 공로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와 앨 고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도 2007년이었다.

IPCC는 급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최대 6.4℃, 해수면이 59cm 상승할 것

으로 예측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최대한 기울인다면 각각 1.1℃와 18cm 상승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삶의 터전이 바닷물에 잠기면서 나타날 혼란, 홍수, 가뭄과 기근, 전염병의 창궐 등등 매우 힘든 시련의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살아 있는 우리도 생의 일부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먼 후대도 아닌 우리의 자식들이 직접적인 고통과 혼란 속에 살 것이 분명한데도 기후변화는 아직도 한 때의 화제일 뿐, 우리 주변에서 구체적인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엄연한 현실인데도 말이다. 다들 선진국이나 정부가 해결하겠지 하고 있는 거다. 그 많은 환경단체 어디 하나 캠페인 한 번 벌였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럴 때 대학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사실 대학은 어디 못지않은 거대한 에너지 소비집단이다. 그런데 무엇을 할까?

미국 대학들은 몇 년 전부터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아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7년에는 152개 대학 총장들이 '미국 대학총장 기후변화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재 여기에 가입한 회원교가 474개에 이른다. 냉난방과 전기사용 등 건물관리에서부터 대학이 구매하는 모든 물품, 학내 교통, 리사이클링 등등 생활 각 분야에서 푸르고 청정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립대의 경우 캠퍼스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20년에는 배출되는 폐기물을 전혀 없게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일례이다. 학교는 목표, 일정,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교직원과 학생이 적극 참여한다.

우리 학교도 지금부터 시작하자. 너무 심하다고 그린캠퍼스가 되는 것은 아니나(실제로는 있는 나무도 계속 베어내고 있지만). 남산에 위치한 서울캠퍼스, 천년고도 경주캠퍼스, 신도시의 일산병원 모두 상징적 의미도 있다.

3만 명에 가까운 동국가족이 지금 얼마

만큼의 물과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쓰레기는 얼마나 배출하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식당에서는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는지(냉동식품보다는 신선한 식재료), 유기농 식품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사람의 건강에는 물론이고 지구의 고열을 내리는데도 좋다, 하루 몇 대의 차량이 드나들면서 CO2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 다음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방안을 만들어 모두가 끼여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리하여 '동국대학교' 하면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캠퍼스, 환경과 생명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도록 하면 어떨까?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대학이 먼저 인식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변화가 실제로 가능함을 정부나 기업보다 대학이, 그것도 동국대학교가 먼저 보여주는 것은 분명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 탈수습기

## 스무 살의 성장 클리닉이 되어준 소중한 동대신문

사춘기에 겪었던 지독한 나의 성장통, 스무 살이 되어 다시 찾아왔다.

지독한 스무 살의 성장통은 무릎관절에서 느껴질 만큼의 아픔이 '내가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사소한 물음에 다시 시작되었다. 이미 청소년기에 떼고 왔어야 할 유치찬란한 물음들이 다시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러한 고통을 풀기 위해 으레 술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신적 성장 호르몬이라고 굳게 믿던 술을 과다복용 해보아도 나의 성장통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나를 얽매어 오는 극한의 성장통.

내가 찾아 온 동대신문사는 일종의 성장 클리닉이었다. 유년시절 유난히도 키가 작았던 나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을 때도 찾지 않았던 성장 클리닉을 스무 살이 되어 처음 찾게 된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곳.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지금 치료 중이다.

신문사에 들어와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어느 강연회, 특강에서도 내 자리는 무조건 맨 앞이다. 물론 키순서는 아니다!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당당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더 기쁘다. 만족감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항상 신문사 생활이 항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만은 아니다. 때론 활자인 내가 감당하기 벅할 만큼의 '몰입 치료'를 받기도 한다. 취재를 위해 한겨울에 땀을 흘리며 캠퍼스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기본이요, 그야말로 쉴 새 없이 계속되는 '마라톤 회의'에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요구한다. 더군다나 마감시간까지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작문의 고뇌는 신문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곤 한다.

성장기의 아이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꾸다. 나도 역시 비슷한 성장통을 본다. 꿈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 훔치고 도망가는 모습이다. 그만두고 싶지만 꿈속에 '나'는 같은 행동만 반복한다. 원고마감이 다가올 때의 촉박함이 꿈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가끔은 살려달라는 외마디 비명으로 잠에서 깨어나지만 훌쩍 커 있을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 흐뭇하다.

이제 수습기자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당당히 쏘다. 처음에는 꿈이 보이지 않던 스무 살 성장통도 반환점을 돌아섰다. 치료의 중간 쯤 온 듯하다. 비록 스무 살 때 나를 괴롭히던 의문을 모두 풀지는 못했지만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큰 키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대신문사에서의 치료가 끝나는 날, 훌쩍 커진 마음으로 세상을 내려다 볼 것을 기대해 본다.

백승성 기자  
baessi03@dongguk.edu

### 동학은 시골벽적

새 학기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분주하다. 학기동안 지내야 할 방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지방출신 학생에게 우리학교 주변에서 방을 구하며 겪은 어려움을 들어 보았다.

고향이 지방이지만 동국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직 걱정은 하지 않았다. 당연히 기숙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지방 학생들이 생

활할 수 있는 기숙사가 없었고 나의 경우는 주변에 얽혀 살만한 친척도 없다. 합격 소식을 통보받은 후 집을 구하는 게 우선이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알아 본 우리학교 주변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했다. 전세 집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월세 40만원을 넘어가는 집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주변에는 비슷한 가격에 세탁기, 냉장고 등이 갖춰져 있지만 우리학교 주변은 아니었다.

기숙사 신청이 예정돼 있지만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다. 학교 인터넷 게시판

을 통해 알게 됐는데 기숙사 건립을 발표한 시간이 꽤나 지났지만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졸업을 할 때 까지 완공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의 글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웠다.

학생들의 대의기구인 학생회도 마찬가지다. 학생의 의견을 모아 대변하고 학생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학생회라고 생각한다. 연세대에 입학한 친구는 '택리지'를 통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택리지는 학생복지위원회가 학교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만든 하숙집·원룸·자취방·고시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라고 한다. 만약 우리학교도 이런 책자가 있었다면 지방에서 올라온 신입생들을 비롯해 집을 구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비싼 주거비용으로 겪는 학생들의 불편은 우리학교 주변 환경 탓만은 아니다. 학교와 학생자치기구가 이러한 학생들의 불편을 귀담아 듣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상훈  
(공과대 사회환경시스템공과)

### 학교주변 임대료 너무비싸 ... 학교·학생회 관심 필요



### 독자 사진첩

겨울을 즐긴다.

새하얗게 쌓인 눈앞에서 어린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되살아나는 동심  
김길현  
(정산대 컴퓨터공4)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아리수
월 (3/3)	쇠고기국밥 (2000) 오징어상추버미밥 (2000) 새우가스 (2500)	갈비경단 (1800) 함박스테이크 (2500) 참치전골 (2500)	콩나물국밥 (2000) 닭갈비 (2000)
화 (3/4)	북어해장국 (2000) 날치알참치볶음밥 (2000) 고구마돈가스 (3000)	닭조림 (2000) 치즈돈가스 (3000) 순두부찌개 (2500)	돈갈비김치찌개 (2000) 낙지덮밥 (2000)
수 (3/5)	돈갈비김치찌개 (2000) 쇠고기카레라이스 (2000) 수제돈가스 (3000)	사골우거죽국 (1800) 상록원정식 (2500) 육개장 (2500)	장터국밥 (2000) 제육덮밥 (2000)
목 (3/6)	갈비탕 (2500) 해물굴소스볶음밥 (2000) 치즈돈가스 (3000)	콩치양념구이 (2000) 새우가스 (2500) 만두전골 (2500)	버섯육개장 (2000) 참치김치덮밥 (2000)
금 (3/7)	손만두국 (2000) 제육김치볶음덮밥 (2000) 치킨가스 (2500)	두부김치 (2000) 두가지맛치킨가스 (2500) 뚝배기불고기 (3000)	쇠고기국밥 (2000) 하이라이스 (2000)

### 대구의 난

#### 수강신청을 말한다



- △수강신청=지옥과 천당
- △수강신청=시간,학점 맞추기
- △08학번 수강신청=대학 생활의 처음으로 맞은 실망
- △수강신청=학교 언덕 보다 더 싫음
- △수강신청의 성공은 마치 살기 좋은 시공장을 만들어놓은 기분일까
- △휴학을 속삭이는 못된 키디.
- △신입생인데 공부욕구를 줄여줌
- △수능을 뚫고 대학 왔더니 더 빠른 수강신청이 있어
- △필요한건 스피드, 필요과목 모두 신청!!와우!!
- △고학년의 수강신청=별 부담 없다
- △수강신청=정정기간 때 하자
- △수강신청=수강냥시
- △수강신청=충격과 공포
- △작품하나 만들었다!!!
- △정말 수강신청 하고나서 휴학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 △입학때보다 등록금은 100만원이 올랐지만 3년 동안 수강신청 서비스는 하나도 발전한 것이 없습니다
- △웬으로 바꾼다는 2학기가 더 걱정.
- △전역하고 적응 못하고 있다가 수강신청 할 때 늦게 들어가서 자리 하나도 없네요.
- △까악~ 똘!!!
- △자기 학년 플라서 남의 것을 다 해줬다는... 누구지?
- △다음 학기도 즐거운 동국 카지노~~~
- △나는 초월했소이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네!
- △수강신청=주4일제 성공 우후후!!
- △걱.. 걱.. 걱..
- △거저지같은학교
- △이젠 '응답없음'에 말할 수 없는 익숙함이.
- △"접속이 끊겼습니다"말에 애간장이 끊는 나
- △9시수업-공강-16시수업, 감사
- △이거 다 제대로 올려주세요 신문에^^\*

### 오피니언칼럼

##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지수 알고 계십니까?

지난 해 겨울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인간발달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1990년에 처음 발간된 것으로 주된 4가지 척도로 인간발달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남녀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GDI), 남녀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GEM), 인간기아지수(Human Poverty Index)를 제시하고 있다.

네 가지 지표중 양성평등 측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남녀개발지수(이하 GDI)와 남녀권한척도(이하 GEM)라 할 수 있다.

올해 발표에 따르면 GDI는 우리나라는 157개국 중 26위로 높은 순위로 해당하나, GEM은 93개국 중 64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GDI는 남녀의 예상수명, 문해지수, 남녀교육수준, 남녀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서 산출하는데, GEM은 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수, 여성의 고위급 직원의 비율, 여성 전문직 또는 기술직 비율, 남성과 여성의 소득차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 지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판단해보면, GDI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부 영역 중 남녀소득수준은 아직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우리나라(남:여)<단위 \$> : 31,476:12,531, 노르웨이 : 40,000:28,637).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또 앞으로 직업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남성에 비해 소득은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직업세계에 뛰어드는 여성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성이 소득 수준이 높은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는 비율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바로 GEM이다.

GEM의 경우 1위를 한 노르웨이와 우리나라의 수치를 비교하였을 때, 의회에서 남녀의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3배정도 더 고르게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는 양성평등적인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럼 이제 우리 학내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학내 구성원 중 여성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학내 구성원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양성 평등적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하고 있으나,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적은 건물이 아직 존재하며, 학교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직자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남성의 편익대로 만들어 놓은 한쪽성에 치우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의 개선은 단순히 학교차원의 행정적인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내의 모든 생활에서 양성성이 충분한 캠퍼스라이프를 위해서 학내 구성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임미령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상담원

로스쿨 예비인가 논란

수요자 위한 로스쿨 총 정원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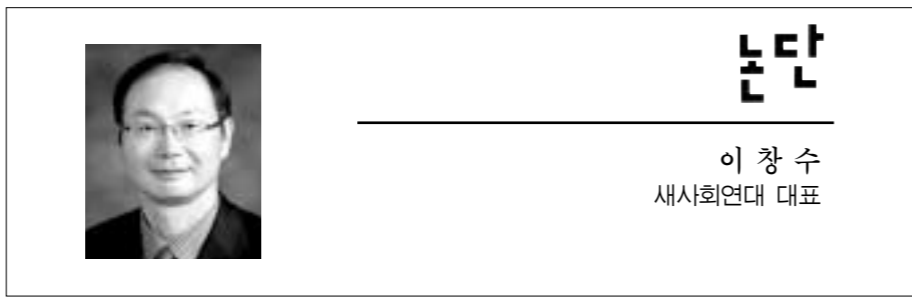
로스쿨 인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잡음이 일고 있지만, 정작 행정당국인 교육부는 자신이 엄정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아가 수도권 지역의 순위와 대학별 총점을 공개해 사실상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의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는 대학과 시민단체들에 대해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모습을 보였다.

로스쿨은 단순히 고등전문 인력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 선정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특권적인 지역과 연관되어 있어 고등교육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번 로스쿨 인가 과정을 보면 교육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립대와 사립시험 합격자 배출 숫자에 따라서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학교육위, 코드인사 전형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은 교육 분야의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우선 로스쿨의 예비인가와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법학교육위원회'는 구성부터 잘못되었다. 법학교



논단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수 4명의 구성이 이른바 '메이저' 중심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 교수가 다수 참여했다. 또 법조인의 출신 역시 특정대학 출신이다. 시민단체 출신 법학교육위원들은 로스쿨에 관한 한 전문성이 없거나 정외대와 코드를 맞춰온 인사들이다.

처음부터 메이저 중심과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인사였다. 이런 구성은 그 선정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물론 선정된 학교들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로스쿨을 할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즉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인 목적과 교육부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는 지방 국립대는 어떤 이유에서든 모두 로스

쿨 유치에 성공했다. 또 기존 메이저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개별입학정원을 배당받았다.

애초부터 총입학정원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지만, 이런 조건에서도 교육기회는 동일한 잣대에 합리적인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는데 법학교육위원회가 제시한 인가기준안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축을 꿰맞추기 위한 기준으로 급속하게 바뀌었다.

총 정원 확대, 추가인가 필요

로스쿨의 기본 원칙은 자율과 경쟁이다. 현재와 같이 제한된 양적 규모로는 로스

쿨의 질적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사실상 인가기준을 갖춘 대학들에 인가를 하여 교육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인가를 취소하는 등 질적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허가가 아닌 '인가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국민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받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일정정도의 정원이 배당되어야 한다. 40명 정도의 인원은 교육에 한계가 있지만 사회에 다시 특권과 연고의식을 가진 법률가를 양산하는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 활동하기 위한 변호사가 다양한 교육을 통해 다수 나와야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맞출 수 있다.

새 정부는 시급하게 총입학정원을 사회적 수요에 맞춰 합리적으로 늘리고 로스쿨을 추가인가하고 배정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을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것도 과제이다. 그간 로스쿨 인가 과정이 법조계와 기독교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국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선진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메아리

담합 (談合)

▲경제용어인 담합(談合)은 서로 의논하여 합의한다는 공동행위의 의미를 지닌다.

담합의 어원은 독일의 '카르텔(Kartel)'에서 온 것으로 중세 때 국가간 휴전 협정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유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담합은 현대에 와서는 기업간 경쟁의 휴전을 의미한다.

자유경쟁 시대인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경쟁 대신 담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공동행위로 발전된 것이다.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은 경쟁을 회피하고 휴전함으로써 공동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업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되고 있다.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독점과 더불어 담합도 규제하고 있다. 정부가 담합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이다.

담합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가격을 결정해 소비자가 지불해야할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부당한줄 알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주변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점, 건물주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학교에는 기숙사가 없어 몇 년 사이 학교 일대의 하숙비 및 집값이 시설에 비해 가격이 치솟고, 학교주변 음식점과 주점 또한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고 한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후문 일대 주점의 생맥주 5백cc의 가격이 2천원에서 2천5백원, 2천cc의 가격이 7천원에서 9천원, 3천cc의 가격이 1만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학생들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대학가의 담합구조 속에서 무방비 대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학교와 학생회는 이 문제를 간과할 것이 아니라 담합의혹의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대학가 생활권에 올바른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상인들 또한 학생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 주고객인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한 바람직한 물가조정이 이뤄지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송이 문화부장  
thispaper@dongguk.edu

사설

교수강의 평가제 공개 논란

교수강의평가제 일반 공개와 관련한 학내의 논란이 뜨겁다. 일반 공개의 적절성, 인권 침해 논의, 개혁의 주체와 대상의 문제, 평가 항목과 방식의 타당성 등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다. 문제는 학교 측이 전격적으로 교수의 강의 평가 결과를 온라인상에 공개했고, 그것이 일부 언론에 의해 대서특필 되는 바람에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이 제도는 학생들을 위한 보다 만족스러운 강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교수 강의의 평가 결과는 학생들이 새 학기 수강신청 시에 참조하기 위한 자료인 동시에 교수들의 성과 평가에 직결되는 보상의 기초자료이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엄정해야 하며 구성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의 약속과 절차가 중요하다.

학교 측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도 문제를 관철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평가 항목과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수 측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행위 본질 자체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근원적으로 흔들는 충격적인 조치다. 지난 학기에 개설된 2천개에 이르는 모든 강좌의 학생 평가 점수를 계량화해서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교육행위를 상품판매행위와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학 교육의 최고 주체인 교수를 마치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분위기에 정서적으로 강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교수의 입장이 한 방향으로 쏠리지는 않는다. 적극 찬성, 찬성, 반대, 적극 반대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환영일색이지만 개중에는 이런 식의 평가 방식을 염려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우리는 이 평가 방식의 큰 틀을 존중한다. 그러나 일반 공개는 특정한 짧은 기간 동안 제한해서 시행하고, 평가 항목과 방식의 적절성 문제는 신중하게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기 바란다. 강의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려면 또 다른 방식도 많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아예 모든 개설 강좌에 강의 전문 컨설턴트 제도를 시행한다. 개강 후 3~4주만 지나면 동료 교수나 교수학습개발센터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가 강의실에 들어가 교수의 강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수에게 알려준다. 교수는 이를 토대로 자기 강의의 수준과 방향을 조정한다. 모든 교수들이 아주 당연하게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 요컨대 학교 측은 보다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바란다.

보리수

불법(不法)에 대응하는 자세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는 결식 나온 비구만 보면 따라다니면서 골방을 먹고 괴롭히는 심술궂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비구들은 그 시장으로 결식 나가는 것 자체를 몹시 꺼렸다.

그때 한 비구가 시장에 가서 그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자진하여 나섰다. 그 비구가 시장에 들어서자 역시 심술궂은 사내가 다가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퍼부으며 따라다니자, 그 비구는 결식을 마치고 대답해 주겠다고 그를 유인하여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 비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내의 목살을 움켜잡고 죽지 않을 만큼 싹둑 두들겨 패고 얼굴에 똥칠을 하며, "앞으로 다시 결식 나온 비구들을 괴롭히면 그때는 정말 혼날 줄 알라"고 으박지르고 떠났다. 그 후로 그 사내는 비구들을 보기만 해도 놀라 도망을 갔다.

이 이야기는 비구들 사이에서 신나는 화제거리가 되었고, 마침내 부처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결식하는 비구를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내를 흥신 두들겨 패준

이 사건에 대해 부처님께서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아무리 괴롭힘을 당하고 골방을 먹더라도 끝까지 참았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을까?

전후사정을 다 들으신 부처님께서서는 "그 비구가 오물로 못된 사람을 창피를 준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전생에도 그랬었다."며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없었다.

부처님의 의중은 무엇이었을까? 부처님은 목갈라나에게, '정말로 나쁜 놈에게는 정중함도 필요 없다.'

나쁜 놈에게는 법도 소용없고 좋은 말도 소용없는 노릇이니, 그런 자와는 맞서 싸우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하였다.

훗날 불교교단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 하겠지만, '대반열반경' 금강심품에는 '비록 계를 잘 지키며 조용한 곳에서 좌선하고 경전을 읽으며 남들에게 설법을 잘해 준다도 해도 정법을 파괴하는 자들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했다. 불자 모두가 곱씹어 생각해 볼 이야기이다.

성열  
강남포교원장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이윤재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2008 신입생을 위한 스타일 처방전

# 화사한 프린트, 둥근 실루엣이 '포인트'

꼭죽처럼 터지는 동백꽃, 유리창 화분에 핀 채송화, 하이신스의 향긋한 꽃내음……. 싱그러움 젊음까지 더해 춘삼월 캠퍼스 안은 그야말로 봄의 향연으로 한창이다. 하지만 이런 꽃의 흥분과 젊음의 달콤함도 남의 일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NG 스타일로 방황하는 새내기들. 매일 아침 애써 입은 옷이 맘에 안 들어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갈 생각만 할 것인지, 서툴지만 재미있는 유행 아이템의 믹스앤매치로 멋쟁이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여기 네 가지의 처방전이 있다. 여러분의 무릎이 땅에 닿기도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지만, 분명 스타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새내기들이여!

2008 스타일의 새기술을 익혀라~.

### 처방전 1 - 화려한 프린트

우선 율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프린트(패턴)'이다. 인기 있는 프린트로써 플라워, 체크, 도트, 스트라이프, 별모양 등 밝고 화사한 프린트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멋쟁이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때 새내기 여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캠퍼스에서 가장 젊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평소보다 좀 더 과감해지라는 것.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는 꽃무늬 스커트, 그 자체만으로도 봄을 느낄 수 있는 스카프 등의 아이템 활용을 과감하게 시도해보자. 조금 튀다 해도, 젊음과 화사함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

단, 이때에도 전체적인 컬러톤은 맞춰야 한다. 또한 프린트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컬러풀한 니삭스라던지 액세서리는 자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잡지에서 갖춰져 나온 모델처럼 스타일링하지는 말라는 것. 유행도 좋지만,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옷이 뒷받침됐을 때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 처방전 2 - 볼륨 실루엣

율봄 둥그란 모양의 볼륨 실루엣이 인기이다. 과장되게 부풀린 풀 스커트, 벌룬 소매의 블라우스 등이 트렌드 아이템인 것. 어떻게 입어도 예쁜 새네기가 이렇게 동그스름한 실루엣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보라. 어찌 귀엽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때에도 짙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 아이템들과 함께 믹스앤매치를 할 기본적인 아이템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우선 예쁘게 입고 다니고 싶어 유행 아이템만 잔뜩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행 아이템 이전에 화이트 티셔츠나 데님 팬츠와 같은 베이직한 아이템의 구입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유행 아이템을 스타일링 할 때에는 무조건 베이직한 아이템과 매치해야 하는 것을 공식처럼 외우자.

다시 정리해보면, 벌룬 소매 블라우스에는 슬림한 팬츠와 매치하고, 부풀린 듯한 풀 스커트에는 슬림한 니트와 매치하

는 것이다. 옷 하나 입는데, 뭐 이런 공식까지 외워야 하나 싶다면 까짓것 안 외워도 상관없다. 하지만 옷 잘 입는 인기녀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외우자.

### 처방전 3 - 소품을 활용한 개성살리기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뭘까? 스타일링에 정답은 없지만, 공식화하면 이런 것이다. '어제 재가 뭘 입었더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무지 예뻐.'라고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것. 즉, 유행 아이템 하나가 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믹스되어 완성된 스타일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처방전 1, 2는 화려한 프린트에 여성스러운 실루엣 등 예쁜 스타일링을 위한 제안이었다. 그렇다면, 처방전 3은 그것보다는 자신의 개성에 무게를 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아무리 새네기라고 해도 마냥 귀엽고 예쁜 것에만 도전할 필요는 없는 것. 모든 의상을 새로 구입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고 싶다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도록 하자. 투박해 보이는 크로스백이나 빈티지한 모자, 고지식해보이는 안경 등이 오히려 스타일링시 해보일 수 있다.

### 처방전 4 - 남자도 주시하라

그렇다면 새네기 남학생들은? '패션 그거 이거 여자애들이나 주라지' 하면서 밤새 눈이 풀어져라 인터넷 쇼핑물을 썰렁보고 있던 지, 패션에 조금이라도 전력을 가지고 싶은 새네기라면, 잠시 패션 공부를 해보자. 눈 딱 감고, 며칠만 옷 잘 입는 애덤 브로디와 제이미 벨의 사진들을 클릭해보는 것이다. 세상 여자들이 열광하는 그들에겐 뭐가 달라도 다른 게 있다. 또 뭔지는 몰라도 스타일닷컴(www.style.com)에 가서 버버리 프로섬과 디스퀘어드2의 '08 S/S 남성복 해외 컬렉션도 한 번 꼭 보자. 클래식과 단순함의 미학이 느껴지는가? 패션이 된지 조금이라도 감이 온다 싶을 땐 이제 용기 내어 도전해보자. 피케 티셔츠 하나를 입더라도 자신의 체형과 완성된 스타일을 생각하고 입자. 또한 명심하라. 남자들의 패션이야말로 조금의 노력으로 대어를 낚을 수 있다는 것을.

새네기들이여, '패션적' 고민이 조금은 해결되었길 바란다. 그리고 과감히 스타일의 기술에 도전해보자. 젊음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기이니까 말이다.

이혜경  
신디더퍼키 패션 에디터



Campus Spring  
새네기의 계절 '봄'  
자신의 스타일을 살려라!



1. 버버리 프로섬 08컬렉션
2. 포인트가 되는 가방
3. 프린트가 화려한 원피스
4. 스타일리쉬한 빅사이즈 뺑글

## 아는 만큼 싸게 산다!

저렴한 의류쇼핑 가이드



새색이 속속 자라는 시기, 봄바람과 함께 새 옷을 사 입고 싶은 마음도 속속 커간다. 하지만 마냥 옷을 사들인다면 재정파탄을 면치 못 할 것. 한 번 더 신경 쓰는 습관으로 싸고 질 좋은 물건을 구입해보자!

### 아울렛

백화점 세일 기간이 끝나거나, 계절이 바뀌는 기간에는 꼭 들러야 한다는 말이 있는 '아울렛'. 최근에는 창고비용을 줄이기 위해 물건이동이 빨라져 6개월 전에 백화점에서 보던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명동역 근처 15층, 가산 디지털단지역 마리오 아울렛이 유명하며 이주위에서는 패션 아울렛, 팩토리 아울렛도 방문해 볼만하다.

대부분의 아울렛의 경우 2월말과 3월초, 8월말과 9월초에 물건들이 대거 입고된다. 이때 다양한 제품들을 풍족하게 만나 볼 수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매주 수요일에서 목요일정도에 수시로 들어온다. 아울렛에 들리기 전 원하는 물건을 매장에 전화해서 미리 주문해 놓으면 손쉽게 제품을 구할 수 있다. 또 고객카드를 작성했거나 VIP고객이 되면 세일과 이벤트가 있기 3, 4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이러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좋아하는 매장을 한두 군데 정해두고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인터넷 아울렛

인터넷 쇼핑은 이제 '쇼핑'이라는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시간을 내 물건을 사러 갈 필요가 없지만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고 자신의 사이즈를 잘 안다면 인터넷 아울렛을 클릭하자.

하프클럽(www.halfclub.com)은 삼지, 대원 등의 브랜드들이 모여 만든 온라인 패션 아울렛으로 이월상품을 최고 90%까지 할인 판매하고, 패션플러스(www.fashionplus.co.kr)는 바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들이 많아 추천한다. 패션스토리(www.fashionstory.co.kr)에서는 2001아울렛과 연동해 상품을 판매한다. 이러한 쇼핑물들은 특별히 판매나 할인 판매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두면 알뜰 쇼핑 도우미가 되어줄 것이다.

### 벼룩시장

벼룩시장을 떠올리면 세계 각국의 벼룩시장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의류를 취급하는 벼룩시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꼭 한번은 겪어야 할 벼룩시장이 있으니, 잡지사가 주최하는 바자회 형식의 벼룩시장이다. 4월경에는 양양을 비롯한 몇몇 잡지사에서 벼룩시장이 열리니 날짜를 잘 확인하면 패션 관계자들이 찬값에 내놓은 질 좋은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문서영 기자  
syooob@dongguk.edu

## 동국미디어센터 대학미디어팀 수습기자 및 국원모집

우량주에 투자하십시오

### 제6회 전통사찰음식조리강좌 수강생모집

1. 강사 : 선재스님(가정교육과객원교수)
2. 교육기간 : 3/18~5/27(10회) 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 학림관 1층 조리실습실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0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4. 재료비 : 10만원
5. 접수기간 : 2007. 3. 17 (월)까지 선착순 30명
6. 접수방법 : 전화·방문접수(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7. 문의 : 2260-8853~5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가정교육과

### 동대신문사

모집인원 ○○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모집분야 취재기자, 편집기자, 사진기자, 그래픽기자, 웹미디어기자  
접수기간 3월 3일(월) ~ 3월 13일(목) 오후 6시 까지  
원서배부 대학본관 1층 제일은행 옆 동대신문사 편집국  
www.dgupress.com 에서 다운로드  
문의 본사 홈페이지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전화: (02)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 교육방송국 DUBS

모집인원 ○○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모집분야 PD, 기자, 엔지니어, 아나운서  
접수기간 3월 3일(월) ~ 3월 12일(수) 오후 6시 까지  
원서배부 학생회관 4층 교육방송국  
문의 www.dubscast.com  
전화: 02)2260-8503

### The Dongguk Post

모집인원 ○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모집분야 기자  
접수기간 3월 3일(월) ~ 3월 21일(금)  
원서배부 대학본관 1층 제일은행 옆 동국POST  
문의 www.dgupost.com  
전화: 02)2260-3493

### White Day Love Cookie 만들기

1. 일시 : 3월 13일(목) 오후 3시~5시
2. 모집 : 선착순 30명(남학생 우대)
3. 장소 : 학림관 1층 조리실습실
4. 참가신청 : 전화 또는 방문신청 (2260-8853)
5. 참가비 : 만원(재료비, 포장용품 포함)